

김종성 건축과 IIT의 교육시스템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인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1. 서론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건축학자들이 건축을 학문으로 정초시키기 위해 불변의 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건축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미의 관습들과, 그런 관습들이 거부되었을 때 도 살아남을 불변의 법칙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건축에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건축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오랫동안 건축계에 남겨진 논쟁거리였다. 불변의 고정된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치들은 상대적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건축교육의 목표와 방법도 동시대의 건축적 담론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에 따른 다양한 건축교육시스템이 논의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건축교육제도 속에는 동시대 건축에 관한 다양한 담론들을 함축하고, 이것이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면서 건축가의 작품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한 명의 건축가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종성의 건축세계는 IIT(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교육을 통해 거의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956년부터¹⁾ 1964년까지 이 학교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66년부터 1978년까지 12년 간 이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도 미스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로 IIT와의 관계는 그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때부터 1978년 귀국할 때까지 22년 간 지속되었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는 이 학교에서 처음 건축을 접하였고, 그곳의 교과과정에 따라 건축을 배우고 익혔으며, 미스 사무실에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IIT의 교육이념을 내적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1978년 한국에 귀국 후 설계한 주요 작품들, 즉 힐튼호텔, 육사박물관, 대우증권빌딩, 선재미술관,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 SK사옥 등은 IIT의 교육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김종성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IIT에서 받은 교육을 주의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IIT의 교육시스템이 김종성 건축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1) 김종성은 1954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한 후, 곧바로 유학 계획을 세우게 된다. 처음에는 IIT와 코넬 대학 두 군대를 지원하였으나, 최종적으로 IIT로 결정되었다. 그가 IIT에 갔던 것은 J.M. Richards가 지은 *An Introduction to Modern Architecture* (Baltimore: Penguin Books, 1954년)를 읽고 나서였다. 여기서 그는 "미스에 대한 구절과 미스가 완성한 IIT 건물 사진을 보고 IIT로 가려는 마음을 굳히게 된다." 김종성, "현대건축과 건축교육", 『공간』, 1976년 8월호.

측면에서 이들의 관계를 바라보려 한다. 먼저, IIT가 가지는 교육목표와 교육방식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IIT의 교육시스템이 기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고, 또 미스 반 데 로에를 통해 근대건축의 이념이 어떻게 교육방식에 도입되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미국 대학교육의 흐름 속에서 IIT가 취한 다양한 교육내용을 고찰한 다음, 이어 이런 IIT의 교육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김종성 건축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두 번째는 건축가 김종성이 IIT라는 주어진 제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고, 그것이 현재 그의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여건 앞에 내 던져진 건축가 개인이 취한 태도와 관련되므로 김종성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건축교육은 건축가를 형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는 보지 않는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후에도 완전히 상반된 건축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어서 교육이 건축가의 미래활동을 완전히 규정짓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 앞에서 이루어진 건축가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점에서 IIT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김종성이 취한 태도를 검토해 볼 경우 김종성 건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IIT의 교육이념과 역사적 의미

IIT의 교육이념은 전적으로 미스의 건축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그의 생각은 교육이념과 교과과정의 곳곳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IIT가 동질한 교육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와 하바드 대학을 맡은 그로피우스와는 전혀 달랐다. 즉, 하바드 대학의 경우 그로피우스가 참여하면서도 그 교육시스템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복합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비해, IIT는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미스의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IIT의 건축교육

에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물론 김종성이 IIT에 입학했을 1956년 당시 미스는 학교 교육에서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었다. 1938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초기에는 주로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많은 일거리가 그의 사무실에 몰려들자, 그는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학교 교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종성이 입학한지 2년 후인 1958년 미스는 정식으로 학교에서 은퇴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종성은 학교에서 미스와는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스가 처음 IIT에서 제시한 건축이념과 그것을 반영한 교과과정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었다. 미스와 함께 독일에서 온 발터 페터한스(Walter Peterhans), 루드비히 힐베르자이머(Ludwig Hilberseimer)같은 교수와 함께 제임스 스페이어(James Speyer), 다니엘 브레너(Daniel Brenner), 알프레드 칼드웰(Alfred Caldwell), 조지 덴포스(George Danforth)같은 제자들에게 의해 하나의 제도로서 더욱 공고히 되었다. 김종성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또 교수가 되어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일조하였다.

미스의 IIT 교육 프로그램은 현대건축교육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그 전까지 미국대학의 건축교육을 지배했던 보자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근대건축의 이념을 담아내려 한 최초의 교육방식으로 평가를 받는다. 물론 그 중간에 바우하우스식 건축교육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스의 이야기대로 “제도가 아니라 명확한 프로그램이었고, 하나의 아이디어였다.”²⁾ 미스가 제안한 IIT 교육은 바우하우스의 교육이념을 상당부분 이어받으면서 미국의 건축적 전통을 반영하여 하나의 제도로서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그렇다면 근대 건축교육을 특징지었던 보자르식 교육, 바우하우스식 교육, IIT의 교육은 어떻게 구분되며, 어떻게 연관되는가?

1671년 프랑스의 왕립건축 아카데미(Académie

2) Mies van der Rohe, *Speech in Honor of Walter Gropius*, 1953년 5월 13일.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Sigfried Giedion, *Walter Gropius: Work Teamwork*, New York, Reinhold, 1954년, 17-18쪽.

Royale d'Architecture)부터 시작된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의 교육시스템은 192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과 미국의 건축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것은 "일개 학교의 건축교육을 뛰어넘어 유럽 뿐 아니라 미국의 건축을 주도해 나갔던 보편적인 건축철학과 설계방법론을 대변하기에 이르렀다."³⁾ 그러나 1920년대 독일의 바우하우스나 러시아의 브쿠테마스(Vkhoutemas)와 같은 교육기관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보자르식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새롭게 펼쳐진 건축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근대건축가들로부터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보자르식 교육 시스템의 근간은 아틀리에 시스템과 로마대상제도에서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로마대상제도는 건축교육에서의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로마에 있는 메디치가에 가서 고전건축을 연구할 학생을 뽑는 일종의 설계경기였지만, 이것을 수상해야 비로소 국가적인 공공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건축가 등용문이었었고, 그래서 에콜 데 보자르에 소속된 각 아틀리에들은 사활을 걸고 이것에 임하였다. 그런데 그 진행방식과 선발과정이 매우 독특하였다. 이것은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되는데, 예선에서는 각기 12시간과 24시간 동안 시간을 주어 에스키스(esquisse)를 하고 여기서 10명의 후보자를 결정하였다.⁴⁾ 이렇게 선발된 이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4일 동안 하나의 똑같은 주제를 두고 에스키스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보자들은 각 아틀리에로 돌아가서 100일 후에 최종적인 설계안을 제출하는데, 만일 최종안이 처음 에스키스와 다를 경우 탈락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주제를 소화해 내는 에스키스 능력이다. 모든 계획안의 관건이 여기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건물을 설계해 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교육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평소에 "아날리틱(analitique)이라고 하여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을 디자인하는 설계과제가 제시되었다."⁵⁾ 또한 에스키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알맞은 평면을 잘 짜는 것이었고, 따라서 평면구성 능력이 건축교육의 핵심이 된다. 심사위원들은 마치 악보를 읽듯이 그 평면을 완벽하게 간파하여 그들과 학생사이에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에콜 데 보자르에서 평면의 구성은 파르티(Parti)들의 배치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파르티를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건축가"⁶⁾라고 이야기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보자르식 교육방식은 근대적 상황과 잘 맞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미스가 시대정신으로 규정한 현대의 기계문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미스는 산업혁명 이후 새로이 등장한 건축재료들과 그들의 구축방식을 중시했는데, "보자르식 설계안에는 벽체와 기둥의 단면 윤곽선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대신, 벽체의 재료, 시공과 구조적 특성을 배제되어 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구조와 장식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체된 것이었고, 이들은 건축가가 상정한 이념에 종속되었다. 이런 생각은 "모든 건축적 주제들을 분절시켜서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명료하게 재구성하려 하였다"⁷⁾ 미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두 번째로 보자르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평면 프로그램들은 매우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그 건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은 건물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점차 건물이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근대건축에서 도시의 문제와 현대문명과의 관계, 아방가르드의 조형원리 등이 건축가들에게 주된 과제로 등장하지만, 보자르식 교육방식은 이런 문제를 교과과정 속으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미스는 당시 미국건축에서 팽배해 있던 보자르식 건축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보이며, 현대 미국교육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였다. 그의 교육이념은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된, 건축에서의 근대적 성취를 교육에 반영시키려고 한 것이다.

미스가 제기한 IIT의 교육방식은 바우하우스에

3) 배형민, "미국 보자르 건축의 이론과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3호, 2000년 9월.

4) Gilles Ragot, Robert Camelot, *Architectes des Palais de la Céramique*, Magarda, 1987년, 14쪽.

5) 배형민, 앞의 책.

6) 앞의 책.

7) Gevork Hatoonian, *Ontology of archite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년, 69쪽.

서 제시된 근대적인 건축교육을 이어받고 있다. 미스는 1930년 발터 그로피우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네스 마이어의 후임으로 이 학교의 3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당시 나찌의 등장으로 미스는 자신의 교육방식을 확실하게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IIT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것의 아이디어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바우하우스의 교육이념은 시대적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나타난 공업화와 도시화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바우하우스는 예술, 수공업, 그리고 산업기술,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교육을 통해 새롭게 정립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교육이념을 제시한다. 건축을 통해 모든 실용적인 예술분야를 재통합하고, 예술과 산업기술 사이에 새로운 통합을 시도하며, 예술과 건축을 대중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특징적인 교과내용을 선보인다. 먼저 모든 교육을 이론적인 강의에 머물지 않고 생산과 연관시킨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교과목 안에는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작업교육(werklehre)과 주로 조형이론을 중심으로 한 형태교육(Formlehre)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두 명의 선생이 동시에 배당되었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는 생각대로 잘 운영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의 작업을 실제 생산현실 직접 연결시키려고 했을 때 유용한 방식임이 입증된다. 두 번째로 예비과정(Vorlehre)이라고 부르는 6개월 간의 기초과정이다. “그 내용은 질감을 통해 재료를 보다 친밀하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풀라쥬 형식을 이용한 형태감각과 창의력의 배양, 그리고 여러 직물의 조합을 통해 감각을 기르는 것이었다. 이 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해방시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창작의 기본원리를 깨닫도록 하는데 있었다.”⁸⁾ 이런 교육방식은 현대 건축교육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모더니티(modernity)의 담론에서 모든 “미적 현실이 자아를 통해 나타나는 단순한 허구적 현상으로 정의되고,” 또 “현대는 자신의 규범성을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창조해야만 한다”⁹⁾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바우하우스는 최초로 그것을 교육적으로 구현하려 하였다. 역사주의라는 공허한 동질적 시간의 관념에 기대어 과거의 건물을 표범으로 삼는 보자르식 교육방법과는 달리, 모든 대상 속에서 자율적인 조형원리를 끌어내어 교육과정 속으로 이끌어 들이려는 것이다. 이 같은 바우하우스의 예비과정은 미스가 IIT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데도 많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IIT의 드로잉 과목과 시각훈련 과목은 이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바우하우스의 처음 목표대로 건축교육을 모든 교육과정의 최정점에 두고,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분야를 숙달한 후에야 건축을 배우도록 하였다. 실제로 바우하우스에서 건축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는 학교가 설립된 후 8년이 지난 후인 1927년이었다. 이런 사실은 미스가 IIT의 교육 프로그램을 짜면서 1, 2, 3학년에 건축 디자인 과정을 없애고 4학년부터 시작하도록 한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점에서 미스는 바우하우스의 건축교수들과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았다.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에서 건축을 교육시키기 위해 스위스의 건축가인 하네스 마이어를 초빙하였는데¹⁰⁾, “그는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건축과정을 도입하게 된다.”¹¹⁾ 그에게 건축은 재료들을 가지고 경제적인 원칙들에 따른 전체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스처럼 미학을 거부하였고, 기술이 건축예술의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미스와 대단히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미스의 IIT 교육이념은 바우하우스의 이념과 근본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다.

그러나 IIT의 교육방식과 바우하우스의 그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우하우스와 훗날 그로피우스가 책임을 맡게될 하바드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잘 파악된다. 즉 바우하우스와 하바드의 건축교육에서 “건물은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도시맥락적인 것보다는 시

8) Howard Dearstyne, *Inside Bauhaus*(송률 옮김), 기문당, 103-113 쪽.

9) Jürgen Habermas,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n*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26쪽.

10) 하네스 마이어는 도시계획을 담당할 힐베르자이머와 건축을 가르칠 마트 스타(Mart Stam), 사진을 가르칠 페터한스 등을 불러 들였고, 이 가운데 힐베르자이머와 페터한스는 미스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IIT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11) Sandra Honey, Mies van der Rohe : Architect and Teacher in Germany, in Mies van der Rohe : Architect as Educator, IIT, 1986년. 44-45쪽.

각적인 주목을 끄는 대상으로 취급된다. 거기서 건물들은 일관된 전체를 고려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법적 규제, 재료, 조형적인 표현들, 시공 프로세스, 상징적 가치와 같은 다양하고 임의적인 요소들을 우연하게 기록한 것으로 된다.”¹²⁾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보다는, 건축을 둘러싼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의 개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계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교육방식은 바우하우스와 하바드에서 그로피우스가 계속해서 고수한 것이다. 그렇지만 미스의 IIT 교육에서는 그것이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미스도 현대건축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개인이 가지는 창의성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IIT 교육의 목적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풀어놓을 경우, 다양성은 확보되지만 무질서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질서와 다양성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단계의 훈련을 통해 순차적으로 달성되기를 원했다. 이런 점에서 바우하우스의 교과과정은 개방적이고, 비결정적이고, 다층적이며, 자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IIT의 교과과정은 균형잡힌 질서 속에 개인의 자율성이 통합되며, 명확한 목표 아래 순차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축을 습득하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 하나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제도는 계속해서 고정된 원칙을 재생산해 낸다는 점이다. 이 경우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미스의 교육방식이 경직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와 함께 미스는 당시 시대적 요구에 의해 강조된 수공업적인 교육방식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것은 바우하우스가 설립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의 미국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 대신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가던 재료와 구조방식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것은 미스가 건축가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 번째로 바우하우스에서는 완전히 무시

한 건축역사과목을 IIT에서는 다시 집어넣는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주로 미스의 건축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또 현대문명과 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이것은 건축이 시대정신의 공간적 펼침이라는 미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프로그램을 매우 중시한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은 바우하우스에서도 나중에 교육되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미스는 이것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교과과정 속에 집어넣게 된다.

1938년 미스는 독일을 떠나 아머공과대학(Armour Institute of Technology)의 건축학과 과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대학은 IIT의 전신으로 건축과의 경우 1889년에 설립된 시카고의 예술대학(Art Institute of Chicago)의 2년제 건축과정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초기 교육프로그램은 파리의 에콜 데 보자르와 에콜 데 자르 데코라티브에서 수학한 바 있는 루이 밀레(Louis Millet)가 짰고, 여기에 번햄, 루트, 제니 등의 잘 알려진 시카고 건축가들이 교수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1895년 이 대학의 건축학과는 1892년에 설립된 아머공과대학과 합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머공과대학은 주로 공학과 일반 교양과정을 제공하고, 드로잉과 디자인 과정은 예술대학에서 담당하게 된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보자르식 건축을 주도한 다니엘 번햄(Daniel Burham)이 이 대학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자르식 교육체제가 강화되기도 하였으나, 시카고 특유의 실용주의도 여전히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시카고의 새로운 건축가 세대가 등장하면서, 보자르식 고전주의는 서서히 퇴조하고, 당시 유럽에서 발생한 국제양식이 점차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¹³⁾ 이런 과정에 미스가 학과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1940년 아머공대는 루이스공대와 합쳐 일리노이공대(Illinois Institut of Technology)가 되었다.

미스는 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모든 교과과정을 새롭게 조정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처음으로 자신의 건축철학을 구체화시킬 기회를 가진 것이다. 그것의 주요 특징은 미스가 1937년에 IIT의 전신

12) Klaus Herdeg, *The Decorated Diagram, Harvard Architecture and the Failure of the Bauhaus Legacy*, MIT Pres, 1983년. 2-5쪽.

13) Alfred Swenson, Pao-Chi Chang, *Architectural Education at IIT 1938-1978*, 10쪽.

인 아머공과대학(Armour Institute of Technology)에 보낸 “건축교육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architectural education)”과 미스의 “IIT 대학의 학장 취임사(Inaugural Adress)”에서 잘 제시되었다. 먼저, 미스는 미국상황에 맞는 건축교육을 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1937년의 ‘프로그램’을 통해, “명료한 질서의 원칙들을 통합하는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된 전제조건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미국상황에 맞는 유기적인 질서의 원칙이다.”¹⁴⁾ 미스가 보기에 “하나의 문화에 다른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문화는 수입될 수 없고, 그 자체적인 힘의 조화로운 펼침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¹⁵⁾ 두 번째로 미스는 근대건축가들이 도출한 성과들을 건축교육에 도입하려 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재료, 구조방식, 기능 등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게 된다. 미스가 1937년 제시한 “프로그램”에서 건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인 문화와, 이런 관계들을 표현하는 건축을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에 뒤따르는 프로그램을 세 가지 단계로 구상하였다. “1단계는 재료의 본성과 그들의 진실된 표현을 탐구하는 것이다. 2단계는 기능의 본성을 가르친다. 3단계는 공리적인 연구들과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의 창조적인 작업을 시작시킨다.” 세 번째로 미스는 그가 1920년대 독일에서 성취한 자신의 건축철학을 교육과정 속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정적인 것(statik)’과 ‘동적인 것(dynamik)’, 구조와 행위, 지속과 흐름, 위치와 변화와 같은 대립항들의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건축에 고도의 정신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다.¹⁶⁾ 미스가 보낸 “프로그램”에서 IIT의 교육이 독일에서 주장해 온 이원적인 대립항들, 즉 실용적인 것과 창조적인 것,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계획과 창조가 하나의 변증법적인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938년의 “학장 취

임사”에도 이런 사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건축의 실용적인 목적과 가치를 구분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실용적 목적은 우리 시대의 특별한 구조의 연관되어 있고, 가치들은 인간의 정신적 본성에 뿌리박고 있다. 실용적인 것이 물질적인 진보로 이어지고, 가치들은 우리 문화의 수준을 드러낸다. 이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처음에 건축은 기능적인 고려로만 이루어진 반면, 모든 종류의 가치들을 통해 정신적 존재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서 그것은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건축교육을 조직하면서 교육시스템이 이런 현실을 맞도록 해야한다. 건축교육은 이런 관계와 상호관계를 설명해야만 한다”¹⁷⁾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미스는 1944-45년의 IIT 교과과정 요강에서 여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건축적 요소로서의 구조의 가능성과 한계
- 건축적 문제로서의 공간
- 건축적 표현수단으로서의 비례
- 재료들의 표현가치들
- 건축과 관련된 회화와 조각
-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수단으로 이런 원칙들의 적용¹⁸⁾

3. IIT의 교과과정

미스는 이런 교육원칙을 IIT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취임 처음에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미 기존의 교육체계에 따라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졸업하고, 자신의 교과과정에 맞춰 입학한 학생들이 충분히 성장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4학년 설계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1941년 그는 처음의 교육이념을 구체화시킨 하나의 완성된 교과과정을 제시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고, 또 건축교육을 4년에서 5년제로 바꾸는 작업을 포함하고 있었다.¹⁹⁾ 5년제는 이때부

14) 'Mies가 Heald에게 보낸 1937년 12월 10일자 편지', *Mies Archive*, Kevin Harrington, 'Order, Space, Proportion, -Mies's Curriculum at IIT', in *Mies van der Rohe : Architect as Educator*, 1986년, Mies van der Rohe 100주년 기념 카탈로그에서 재인용.

15) 앞의 책.

16)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Fritz Neumeyer, *Artless World*, MIT Press, 1991년.

17) Mies van der Rohe, Inaugural Adress at IIT, 1938년

18) *Architecture : Synopsis of the 5-years curriculum(IIT Bulletin 1944-1945)*, in Werner Blaser, *After Mies Mies van der Rohe-Teaching and Priciples*, Van Norstrand Reinhold Company, New York, 1977년, 33쪽

표 1. 1941년부터 1978년까지 IIT의 교과과정 프로그램

Sequence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Fourth Year		Fifth Year	
	First Semester	Second Semester	Third Semester	Forth Semester	Fifth Semester	Sixth Semester	Seventh Semester	Eighth Semester	Ninth Semester	Tenth Semester
Architecture					(Architecture)		_____			
					(Architectural Practice)				_____	
Planning					_____					
Construction			_____							
Visual Tranning			_____							
Science-Engineering	_____		_____				(Structure)			
	_____		_____				(Environmental Facility)			
History	_____									
Drawing	_____				(Life Drawing)					
	_____		(Architectural Drawing)							
General Education Program	_____							_____		

터 논의되다가 1946년부터 국가의 인증을 받아 시행되게 된다. 이때 제시된 건축학과 교과과정은 8가지 시퀀스로 나누어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건축, 도시계획, 드로잉, 시각훈련, 역사, 과학-공학, 건설, 그리고 일반교양으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IIT의 건축학과 학생들은 3학년까지 공통된 교과 과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건축 또는 도시계획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19) 미국에서 건축교육이 처음으로 5년제가 승인된 것은 1920년이다. 코넬대학은 1911년부터 조건부로 5년제를 실시하였고, 1922년부터 4년제 교육을 중지하였다. 1926년이 되면 10개교가, 1931년에는 21개교가, 1935년에는 전체 45개교 중 24개교가 5년제를 채택하였다. 류전희, "근대건축교육 학계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3년 2월
20) Mies van der Rohe, *Architecture Curriculum at IIT*, 194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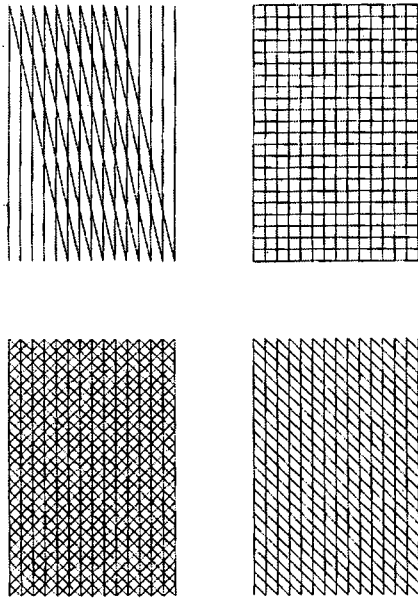


그림 1. 건축드로잉과제 (IIT학생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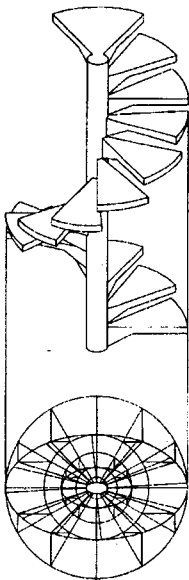


그림 2. 건축드로잉 과제 (IIT학생작품)

IIT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최고 먼저 배우는 것이 드로잉 과목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드로잉이 건축적 생각과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보고, IIT의 학생들이 다음 단계의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숙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보기 때문이다. 드로잉 과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하나는 건축드로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물드로잉이다. “건축 드로잉 강의는 드로잉의 가장 기본 요소인 선에 대한 연구로 시작된다. 선은 공업세계의 근간이 되는 수학과 물리학의 추상언어이면서 동시에 건축언어이다. 학생들은 정확하고 표현적인 선을 긋는 법을 배우게 된다.”²¹⁾ 실물 드로잉은 실물을 프리 핸드로 그리는 것으로, 보이는 오브제들을 해석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지각과정과 형태추상은 학생들의 공간적 감수성을 높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건축 드로잉 강의는 선(線)이 가지는 공간적 성격을 연구하게 된다. 최초의 문제는 공간 속에서 선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상을 다양한 평면에 투사시키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선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그룹 짓는 연습을 한다. 그 다음 액소노메트릭의 다양한 형태들이 연구된다. 그리고 계단실, 지도의 콘타, 방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선 등과 같은 3차원적인 대상을 묘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실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투사도로 매우 세밀하게 그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실물드로잉의 경우 연필이나 파스텔, 붓 등을 이용하여 실제 모델이나 식물, 동물, 전경, 건물 등을 스케치하였다. 김종성의 경우 붓으로 하는 스케치를 매우 즐겼다고 하지만²²⁾ 그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1학년 때 드로잉과 함께 배우는 것이 바로 건축역사이다. 건축역사강좌는 3학년 마칠 때까지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분야의 강의는 페터한스와 칼드웰 교수가 번갈아 가며 담당하였다. 이들은 건축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강의방식도 매우 달랐다. 가령, “칼드웰은 시간의 불가피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으로 저항하려는 건축가의 용기를 내세운 반면, 페터한스는 철학, 역사, 수학을 두루 전공한 사람답게 건축역사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²³⁾ 그렇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의방향은 미스의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미스는 이들의 강의를 직접 모니터하면서 그들의 강의 방식

21) Alfred Swenson, Pao-chi Chang, *Architectural Education At IIT 1938-1978*, IIT, 1980년, 29쪽.

22) 김종성과의 인터뷰.

23) Kevin Harrington, 앞의 책.

을 자기식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미스는 “그리스 신전, 로마의 바실리카, 중세 성당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개별 건축가들의 작품이기보다는 전체 시대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²⁴⁾ 건축역사는 바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각각의 시대의지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는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것들로, 그리스 신전보다는 로마의 거대구조물들, 그리고 고딕성당을 부각시켰다. 특히 고딕 성당은 그 진화과정을 상세하게 다룰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까지를 일단 다루고서 기초적인 역사강의를 매듭지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IIT의 역사교육이 18세기와 19세기의 신고전주의 건축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로 학생들은 ‘기술과 건축’, ‘문명과 건축’이라는 강좌를 통해 19세기 근대건축의 선구자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서 20세기 근대건축으로 곧바로 넘어갔다.”²⁵⁾ 이것은 미스가 건축역사를 파악하는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IIT의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시각 훈련(Visual Training)이라는 과목이다. 이것은 2학년과 3학년 과정에서 개설된 것으로 바우하우스에서 사진을 가르쳤던 페터한스가 담당하게 된다. 이 과목은 학생들의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스가 보기에 “학생들이 자신이 이야기한 비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하지만, 실제 과제에서는 전혀 비례감을 표출시키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눈이 비례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눈을 훈련시켜서 비례감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마련하게 되었다.”²⁶⁾ 이 과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요소들의 역동적인 밸런스, 요소들의 시각적으로 일관된 관계, 덧붙이거나 뺄 수 없는 미적 통일성, 자연스러워 보이는 구성 등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3학기 째에는 흑백 요소를 이용한 비례의 연구, 4학기에는 형태와 비례와의 관계

를 탐구하고, 5학기에는 흑백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 시각적 텍스처를, 그리고 6학기에는 텍스처와 색채를 연구하게 된다. 이런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건축적 비례와 미적 기준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고, 졸업후 그것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종성을 포함한 IIT 출신 건축가들의 작품들은 대부분 비례가 좋고 디테일이 훌륭하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그것은 이런 훈련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학의 건축교육과 구분짓는 IIT의 독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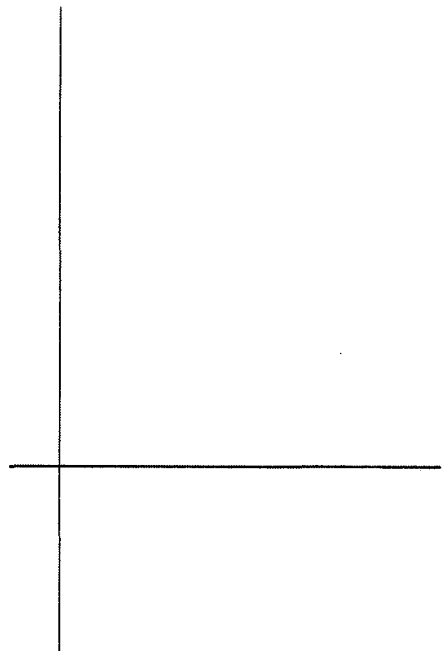


그림 3. 시각훈련 과제(IIT 학생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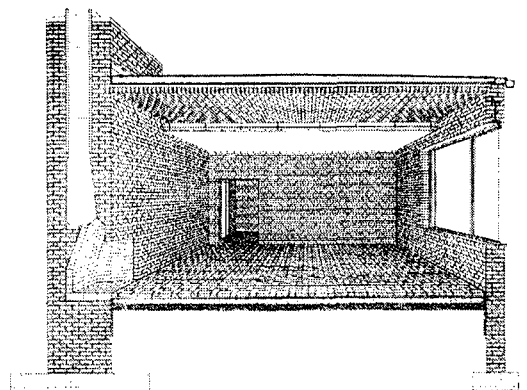


그림 4. 건설과목 과제(IIT 학생작품)

24) IIT에서 역사교육은 미스의 두가지 글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Mies van der Rohe가 1924년에 쓴 “Baukunst und Zeitwille.”이라는 글이고, 또다른 하나는 1950년에 쓴 “Architecture and Technology.”라는 글이다.

25) 김종성과의 인터뷰, 2001년 2월.

26) Mies van der Rohe, *Peterhans' Visual Training Course at IIT*, in Alfred Swenson, Pao-chi Chang, *Architectural Education At IIT 1938-1978*, IIT, 1980년.

교과과정이 바로 건설 시퀀스이다. 이것은 새로운 재료들과 시공방법을 매우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교육으로 2-3학년동안 이루어졌고, 알프레드 칼드웰이 이 과목을 담당하였다. IIT의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혹독하게 교육받으면서, 재료와 시공방식에 담겨 있는 명확한 원칙들을 습득하게 된다.

이것은 미스가 제시한 프로그램 가운데 제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거기서 미스는 재료의 본성과 그들의 진실된 표현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목이 바로 그런 생각을 충족시키고 있다. 2학년 1학기의 최종과정에서는 벽돌 조적조를 연구하는데, 벽돌과 몰탈의 물리적 속성, 그들의 내력방식, 조적조 벽체의 모서리와 교차부분들의 처리방식, 보와 바닥판과의 결합방식, 지붕의 방수 등을 다룬다. 김종성의 경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1/24 스케일로 된 여러 가지 벽돌 쌓기 방식, 모서리와 창호계획을 하는 연습을 했고, 이후 그것을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렸다. 벽돌로 된 집을 단면 투시로 그리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그려야 했다.”²⁷⁾ 4학기 째에는 돌과 목재를 다룬다. 여기서도 벽돌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시카고의 대표적인 목구조 방식인 벌룬 프레임(Balloon frame)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런 교육은 훗날 벌룬 프레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도 지속되었다고 한다. 5학기 째에는 철과 콘크리트의 재료적 속성과 그들을 사용한 간단한 구조시스템이 연구되고, 6학기 째에는 이런 철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초고층 건물과 대공간 구조물에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역학문제를 연구하게 된다. 현재 김종성이 5학기 때 제작한 모형사진이 남아 있어서 당시 그가 받은 교육을 짐작케 한다. 거기서 24피트의 기둥 간격을 가진 16층의 철골조가 매우 정교한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모형은 철골 부재들의 결합방식과 역학관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제작된 것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서 학생들은 실제 건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

IIT의 학생들은 3학년에 올라가면서 칼드웰 교수의 건설과정을 들으면서 이들을 보내게 되고 나머지 이들은 도시계획을 배워야 했다. 김종성이 IIT에 재학할 당시에는 도시계획 과목은 3학년의 경우 자크 브라운슨이 담당했고, 4학년에서 계속

할 경우 힐베르자이머에게서 배우도록 하였다. 힐베르자이머는 바우하우스에서 도시계획을 가르쳤던 교수로 미스와 함께 IIT로 건너왔다. 그는 건축과 도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방식에 있어 미스와 의견을 같이 했다. “그것은 명확한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주어진 사실들과 요구조건, 그리고 삶의 개념(concept of life)을 바탕으로 한다.”²⁸⁾ 1928년에 쓴 「대도시건축(Großstadtarchitektur)」라는 책에서 그는 “대도시가 집중화된 자본을 창출하는 곳으로, 익명적이며, 매우 강렬한 삶의 리듬으로 인해 모든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는 곳으로 보았다. 그래서 대도시에서의 친근함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동주거단지를 산개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대신, 자본주의적 합리화 과정의 정점에 위치하는 ‘기계도시’를 제안하게 된다.”²⁹⁾ 이런 그의 생각은 미스의 건축개념과 많이 유사하였다.

힐베르자이머는 IIT에 와서도 가장 최소한의 공간에서 도시규모로까지 발전하는 단선적인 도시관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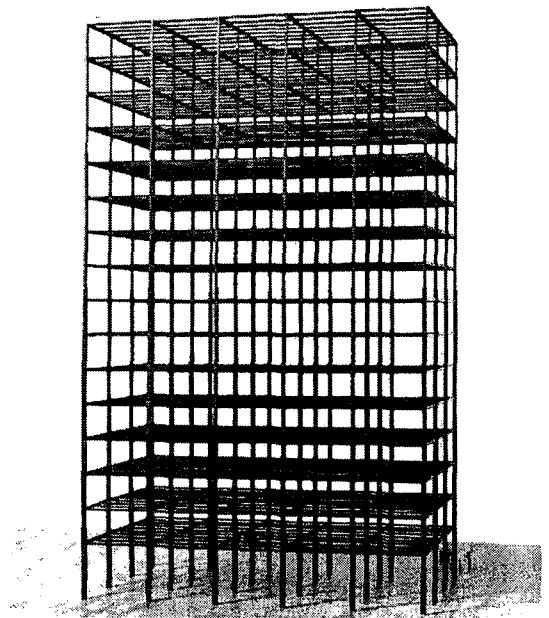


그림 5. 김종성의 철골모형사진

28) Alfred Swenson, Pao-chi Chang, 앞의 책

29) Manfredo Tafuri, Francesco Dal Co, *Architecture contemporaine*, Berger-Levrault, 186쪽.

27) 김종성과의 인터뷰.

에 제일 작은 침실계획부터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침대크기에 따른 최소공간, 방향에 따른 계획, 창호 계획등 세부적인 것까지 계획했다. 다음이 주택인데, 작은 주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규모가 커졌을 때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것을 두 학기 동안 심층 연구하였다. 그 후로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사람은 힐베르자이머에게서 배우지만 김종성은 더 이상 도시계획을 계속하지 않았다.

IIT의 학생들은 처음 3년 동안 드로잉, 역사, 건설, 도시계획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과제와 학습량에 역눌리면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다. 건축의 기본을 혹독하게 익히는 것이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되어 설계 스튜디오로 배치되면서 학생들은 다소 숨을 돌리게 된다. 이때 학생들은 건축을 전공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전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대략 40명의 학생이 1학년에 들어와서 4학년에 이르면 15명의 학생이 도시계획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건축 쪽은 20명의 학생이 선택하며 나머지 5명의 학생들은 건축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4학년 설계 스튜디오는 대략 20명의 학생을 한 교수가 담당하게 짜여진다."³⁰⁾

IIT의 교과과정에서 건축 스튜디오는 4학년과 5학년에서만 개설되어 있다. 이것은 바우하우스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처음 7학기에서는 두 가지 연습으로 시작된다. 하나는 건축과 관련지어 회화와 조각을 고려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축에서의 공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을 위해 콜라주 스터디가 주로 이용되었는데, 이것은 적당한 그림이나 조각을 주어진 공간적 맥락 속에서 위치시키는 것이다. 나중에 김종성이 IIT의 교수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지도한 것도 콜라주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것은 공간을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공간을 조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건축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주렐했던 것이 건축모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내부 간막이 벽을 모두 제거한 다음 하나의 흐르는 연속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획해 가는 것이다. 이런 훈련과 함께 주말별장과 같이 매우 단순한 기능을 가지는 건물을 설계하며,

학생들은 외부조경과 관련지어 간막이 벽체를 위치시키고, 이를 통해 흐르는 공간시퀀스를 만드는 방식을 훈련받았다. 이후 학생들은 이 건물의 벽체를 확장시켜서 담장을 만들고, 그 담장에 의해 둘러싸인 정원을 계획하게 된다. 그 결과 건물의 내외부 공간이 상호 소통하는 하나의 정원 주택이 만들어지게 된다. 5학년이 되었을 때 학생들은 주어진 프로그램과 대지가 있는 소규모 건물을 철골 구조나 콘크리트 구조를 이용하여 완전히 설계하게 되고, 마지막 10학기에서는 보다 복잡한 건물을 다루게 된다.

김종성은 4학년이 되면서 다니엘 브레너(Daniel Brenner) 교수의 스튜디오를 선택하였다. 브레너는 미스의 뛰어난 제자였다. 미스가 엘버트 칸(Albert Kahn)의 비행기 공장을 콘서트 홀로 풀라쥬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브레너의 작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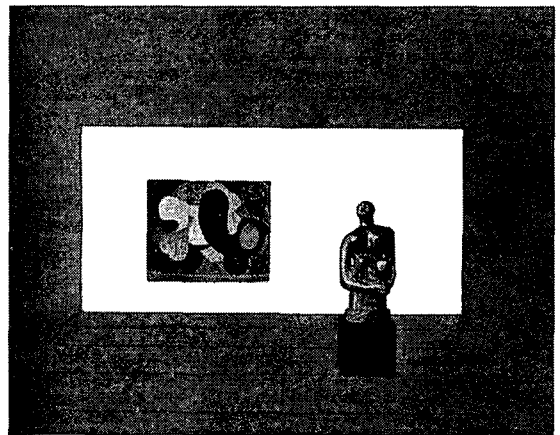


그림 6. 콜라주 (김종성이 지도한 IIT학생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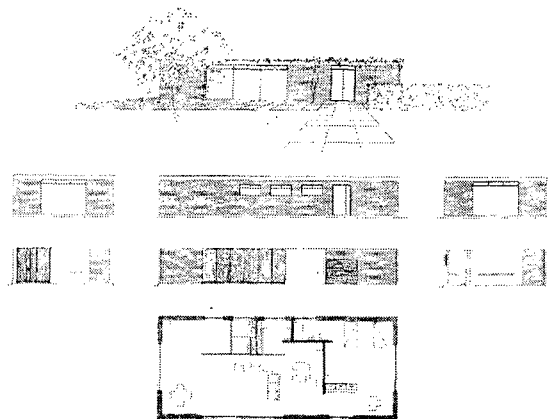


그림 7. 원룸 과제 (IIT 학생작품)

30) 김종성과의 인터뷰. 2001년 2월.

었다. “그가 IIT에 합류했을 때 그는 4학년과 5학년의 스튜디오를 담당하였고, 거기서 그는 첫 3학년동안 배운 기본지식들을 통합하여, 이 시기에 배운 추상적 문제들과 함께 실제 건축물로 만드는 작업을 가르쳤다.”³¹⁾

수업 과제는 원룸 주거, 소규모 미술관, 시카고 시내의 중요한 사이트에 보석상점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보통 한 학기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현재 김종성이 다니엘 브레너와 함께 한 프로젝트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다른 학생들의 작품이 몇 개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의 지도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7학기 째에 한 프로젝트는 벽돌로 된 작은 주택이다. 이것은 미스가 당시 한 판스위스 주택의 내부공간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커다란 공간 속에 각막이 벽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구분 짓는 것이다. 전체 평면은 일정한 그리드 위에 설치되고, 간막이 벽으로 구획된 각각의 공간들은 막히지 않고 흘러다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벽체와 개구부 사이의 엄격한 비례관계로 구성하여, 추상적인 조형의 완결성을 추구한 것이다. 김종성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 브레너 외의 다른 교수들이 지도한 작품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서, IIT의 전체 교과과정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훗날 김종성이 IIT의 교수가 되고서 지도한 방식에도 이런 방법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학년에 진학해서 김종성은 하워드 디어스타인(Howard Dearstyn) 교수의 스튜디오에서 설계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졸업작품으로 주한 미국대사관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대지로 현재 시청 앞 플라자 호텔이 들어서 있는 부분을 선택하였다. 전체 대지의 형상은 삼각형 모양인데, 그 삼각형의 하변 부분에 수공간을 포함하는 광장을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두 개의 건물, 즉 미국대사관과, 문화원과 전시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김종성은 시청의 위치와 접근로를 고려하여, 대사관 건물을 시청과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장방형으로 된 2층의 대사관 건물은 측면이 세 베이로 되어 있고, 정면은 일곱 베이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24피트의 구조모듈을 사용했기 때문에

72피트X168피트의 크기를 가진 건물이다. 이 건물의 1층은 가장자리가 피로티로 되어 있고, 건물 내로 들어 가면 2층까지 터져 있는 중심공간이 나타난다. 여기에 2층으로 올라가는 2 개의 계단이 설치된다. 이런 공간구성은 미스가 1957년부터 뉴멕시코에 설계한 바카디 빌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훗날 그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도 계속 등장하게 된다. 2층 평면은 미스가 1945년에 설계한 IIT의 금속 화공과 연구실 건물과 유사하다. 단지 여기서서는 중정 대신에 중심공간이 설치된다.

문화원 건물은 정사각형으로 평면을 가진다. 건물의 기능은 미스가 베를린에 설계한 국립미술관처럼 1층에 전시공간을 두고, 강당과 사무실을 지하에 두었다. 전시장 내부는 세 개의 간막이 벽에 의해 구획되어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IIT의 대학원 과정

1961년 김종성은 5년과정으로 된 IIT의 학부과정을 끝마치게 된다. 그리고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했다. 이 때 그는 한국에서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방학 때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충하였고, 그러다가 대학원 1학기가 끝나기 전에 1961년 4월부터 미스의 사무실에서 취직하게 되었다. 당시 미스의 사무실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고, 칼드웰 교수의 추천으로 김종성이 뽑히게 된 것이다. 한 동안 김종성은 미스의 사무실 일과 대학원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학원 과정은 다소 길어져서 1964년에야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된다. 논문 지도교수는 마이런 폴드스미스였다. 김종성은 학부과정에서 익혀왔던 건축개념을 대학원 과정을 통해 더욱 심화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IIT의 대학원 과정은 1932년 이 학교의 전신인 아머공과대학에서 이미 설립되었다가, 1938년 미스가 이 대학에 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미스는 학부교육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형과 드로잉을 이용하여 구조, 기능, 비례, 공간, 재료와 디테일 등에 대해 심화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면서 보다 깊이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정신을 명확히 표현할만한 명료한 구축방식을 추구하였다.”³²⁾ 이를 위해 사무소 건물, 대규모 콘서트 홀,

31) Kevin Harrington, 앞의 책.

32) Alfred Swenson, Pao-chi Chang, 앞의 책

전시장, 콘벤션 센터, 건축학교 등이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이들은 공업시대에 사회적 요구에 의해 창조된 건물유형들로 미스의 생각을 전달하기에 좋았다. 미스가 지도한 대부분의 대학원 논문은 이들 건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방식은 그가 은퇴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1958년 미스가 은퇴했을 때, 몇 년동안 미스의 제자인 제임스 스파이어가 대학원 과정을 담당했다가, 1961년부터 SOM의 파트너이며, 미스의 지도로 IIT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었던 마이런 골드스미스가 대학원과정의 주임교수로 영입된다. 김중성이 1961년 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처음 한 학기는 제임스 스파이어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다가 곧 마이런 골드스미스로부터 대학원 지도를 받게 된다.

마이런 골드스미스는 SOM의 구조전문가인 파즐러 칸(Fazlur Khan)을 부교수로 영입하여 그와 공동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 그의 지도방향은 미스와 함께 쓴 석사논문인, “고층건물: 스케일의 효과(Tall Building:)”에서 잘 드러난다. 이 논문의 주제는 “건물 기능상 보다 넓은 스펠과 보다 높은 높이를 요구하는 건물의 경우, 스펠과 높이에 대한 스케일이 구조시스템과 건물의 전체적 성격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³³⁾ 예를들면, 20층, 50층, 그리고 100층 높이의 건물을 각각 지을 경우, 거기에 사용되는 구조체는 단지 구조 부재의 강도와 크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층 건물에는 전단벽 코아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면, 50층 건물에는 튜브방식이나 아우트리거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서구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각되어 왔다. 최초로 갈릴레오가 1638년 쓴 「두 개의 신과학」이라는 책에서 등장하고, 이것을 닥시 웬워스 톰슨이 쓴 「성장과 형태(Growth and Form)」란 책에서 생물학적으로 연장시키고 있다.”³⁴⁾ 이런 생각을 따라 골드스미스는 건물의 높이와 구조시스템을 연결시킨 일련의 도표를 만들어 냈고, 이들은 현재 대부분의 구조관련 책들에서도 도입부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골드스미스는 새로운 구

조시스템을 사용하여 보다 큰 스케일의 건물을 연구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그들의 실제적 한계와 건축적 표현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는 스케일 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수단을 가진 명료하고 합리적인 구조가,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세련된 건축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³⁵⁾ 이런 그의 생각은 김중성의 논문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스케일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골드스미스는 칸과 협동으로 고층건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튜브구조(tube systems)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대 고층건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으로 평가받는다. 프레임 튜브(Frame Tube), 브레이스로 된 튜브(Braced Tube), 번들 튜브(Bundled Tube) 구조의 개념은 그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석사논문에서 계속해서 검토된 것으로, 이들은 실제로 1970년대 마이런 골드스미스가 설계에 참여한 100층 높이의 존 헨콕 빌딩과 시어스 타워로 구체화된다. 이때가 IIT로서는 최전성기를 구가했다고 여겨진다.

김중성은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전시장 건물(Exhibition Hall)을 설계하게 된다. 이것은 미스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부터 많이 다루어 지던 주제였다. 그가 논문주제로 전시장을 택한 이유로, “전시장 건물이 19세기 이후 이루어진 건축예술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고, 그래서 동시대의 필요성과 수단을 가지고 이 건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³⁶⁾ 하였다. 그의 논문은 19페이지에 이르는 간략한 글과 나머지 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들은 전체적으로 다섯 장으로 구분된다. 첫 장은 전시회장 건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그는 조셉 팩스틴의 수정궁 이후 전시회장의 건축적 특징과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는 오늘날의 수많은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장에서는 전시회장을 무주공간(Clear span)으로 구성하는 두 가지 구조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미스가 1942년 ‘소도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되고 IIT의 크라운 홀에서 실현시킨 것으로, 지붕위로 판보(Overhead plate girder)를 설

33) 앞의 책

34) 앞의 책

35) 앞의 책

36) Jong Soung Kimm, “An Exhibition Hall”, IIT 석사논문, 1964년 6월.

치하여 전체 구조를 지지하는 것이다. 만하임 극장 프로젝트에서는 판보 대신에 트러스를 이용하여 262피트에 이르는 대공간을 지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스가 베를린 국립미술관에서 제시한 두 방향 그리드(Two way grid) 구조시스템이다. 이

것은 1953년의 시카고 컨벤션 센터에서 두 방향 그리드로 된 트러스가 213피트로 된 정사각형 지붕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김종성이 보기에 이 같은 구조방식은 미스처럼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 건축가에 의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보편적으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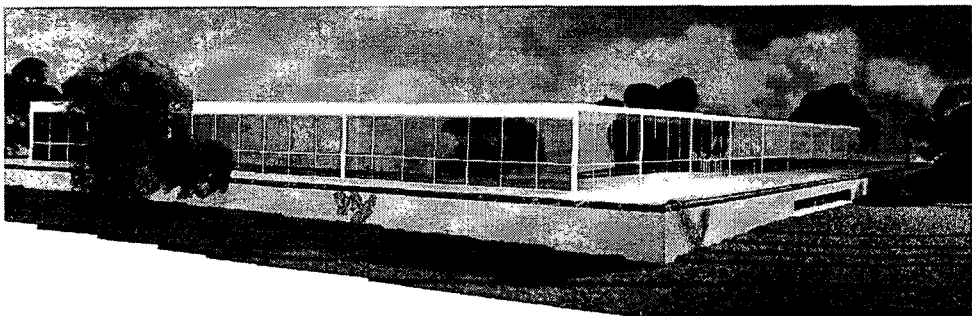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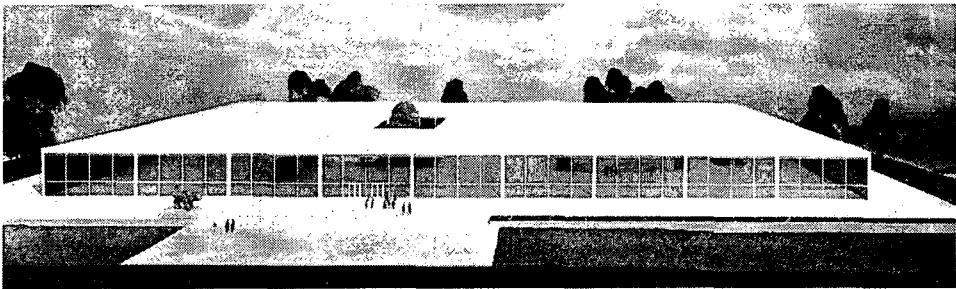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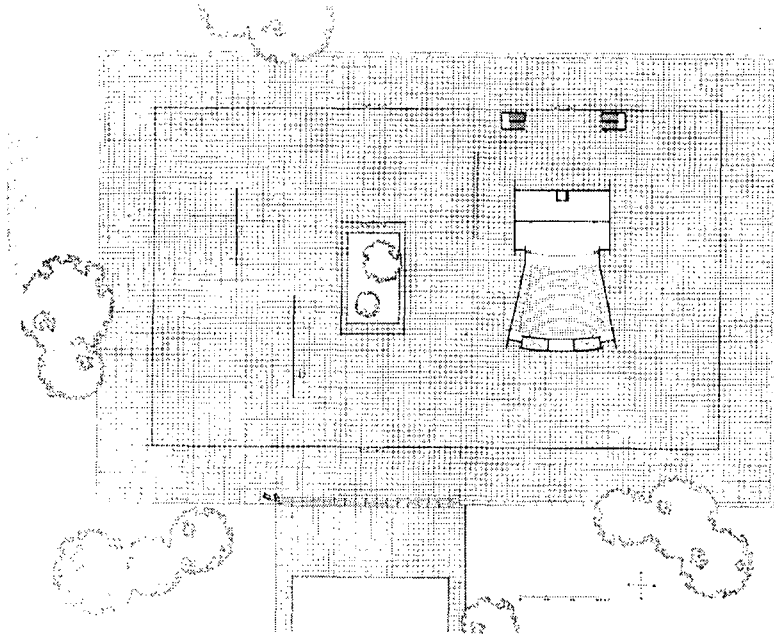


그림 8, 9, 10. 김종성의 대학원 논문작품. 1층 평면과 모형 사진

스케일이 수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먼저 “지붕 위로 판보를 설치할 경우, 스패인이 늘어나면 날수록 건축적인 비례를 위해 더욱 높은 건물 높이를 필요로 하고, 지붕 위로 설치된 보의 폭과 깊이도 더욱 커지게 된다. 이 경우 지붕 위의 보가 건물을 압도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은 스케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³⁷⁾ “그리고 두 방향 그리드로 된 구조시스템의 경우에도, 정사각형 평면을 가져야만 하고, 또 내부 중정을 설치하여 빛을 끌어들이고 공간을 조작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³⁸⁾ 따라서 김종성은 “이런 구조시스템들이 본질적으로 적정한 스패인을 가지고 못하고,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시각적으로도 그다지 좋지 않고, 무주공간의 구조방식들은 스케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³⁹⁾고 보았다. 이것이 김종성이 내린 결론이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구조방식과 적정한 스케일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던 골드스미스의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김종성은 정확하게 내부공간의 융통성이 과연 전시회장에서 얼마만큼이나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꼭 내부공간을 무주공간으로 할 필요도 없이 기둥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전시회장의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그가 제안한 전시회장 건물은 시카고의 잭슨 파크(Jackson Park) 내에 위치한 것으로 과학기술박물관의 남쪽 대지로, 접근로부터 약간 들어올려진 넓은 대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건물은 이런 대지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김종성은 건물 주변에서 각기 40 피트 길이만큼 바깥 쪽으로 더 확장된 테라스를 이런 대지 위에 설치하고 있다. 이곳은 건물로 접근하는 관람객들을 북쪽 파사드에 위치하는 현관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여기서 야외전시도 할 수 있고, 또 경계부분에 벤치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주위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남서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경사져 있는 대지의 경사도를 흡수하고, 경사로 인해 노출된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지하에 위치하는 사무실에 자연채광이 되도록 하였다. 대지 위의 테라스 위에 백색으로 된 철골구조물이 설치되고, 이 구

조체들 사이로 브론즈 색깔이 들어 있는 유리가 삽입되게 된다. 건물은 남북방향으로 긴 파사드를 갖는데, 이것은 48피트로 된 9개 베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길이가 432피트에 이른다. 동서쪽 파사드는 84피트의 3개 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길이가 252피트에 이른다. 내부기능은 하나의 단일공간 속에 400석 규모의 오디토리움이 있고, 또 중정이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내부로 부드러운 빛을 끌어들이면서 전시공간을 동쪽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물 외관 전체가 유리로 투명하게 처리되면서, 내외부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도록 배려했다.

이같은 김종성의 전시장 건물에 대한 설계는 비슷한 시기에 IIT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던 다른 학생들과는 많이 달랐다. 1962년 메이지 와타나베가 석사논문에서 설계한 기차 전시장 건물과 1964년 엠마누엘 글리니아다키스(Emmanuel Glynisdakis)가 설계한 스포츠 센터는 김종성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대형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들은 모두 미스의 베를린 국립미술관처럼 정사각형 평면을 가지며 내부공간을 무주공간으로 처리하였다. 지붕을 거대한 두 방향 그리드로 처리하고, 이를 외부 기둥이 지지하도록 하였다. 이런 생각은 더욱 발전하여 1969년에 논문을 제출한 피터 프랜(Peter Pran)은 똑같은 주제의 프로젝트에서 현수식 지붕구조를 가진 엄청난 크기의 전시장 건물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들 계획안들에서 건물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구조물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다. 기차전시장의 경우 8피트 짜리 철판을 사용하였고, 스포츠센터는 17 피트 높이를 가지게 된다. 또 건물크기와 적정한 비례를 갖기 위해 건물 층고가 높아진다. 가령 기차 전시장의 경우 층고가 45피트이고, 스포츠센터는 87피트에 이른다. 김종성이 보기에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무주공간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 비경제적이고, 구조체의 스케일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들 건물들은 이런 구조적이고 조형적인 문제점 외에도 공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졌다. 그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베이로 된 구조시스템들이 직사각형 베이로 된 구조시스템보다 오픈 플랜에 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15피트 정사각형 베이나 15x20피트

37) 앞의 책, 10쪽

38) 앞의 책.

39)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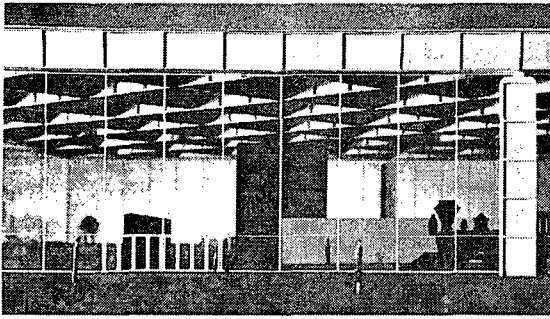


그림 11. 메이지 와타나베의 석사논문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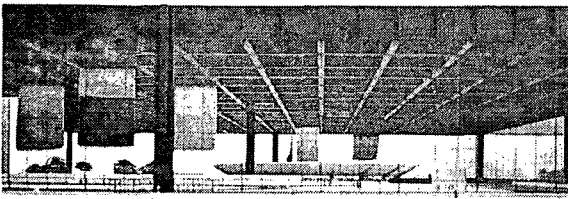


그림 12. 엠마누엘 글리니아다키스의 석사논문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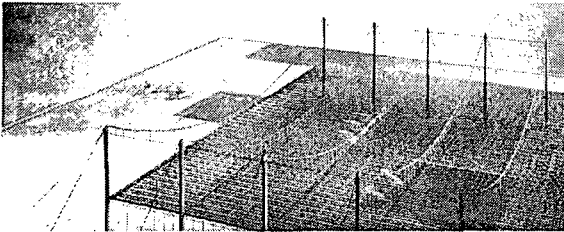


그림 13. 피터 플랜의 석사논문작품

크기의 직사각형 베이처럼 사람이 한 눈에 쉽게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 내에 있을 때 그렇지만, 이 베이들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⁰⁾ 이와 함께 빛의 처리 문제도 어려웠다. 구조적인 이유로 일정 간격의 보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천창이나 중정을 설치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김종성은 건물내부에 기둥을 집어넣고 직사각형 베이로 처리한 것으로 인해 건물의 천장고를 21피트로 낮춘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공간감을 더욱 좋게 했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것을 무주공간으로 처리했을 경우 천장고가 최소한 25피트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직사각형으로 평면을 푸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건물평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남북방향을 가로지르는 보의 크기와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는 보의 두께가 다른 것이다. 그가 만든 건물모형을 보면 건물측면과 건물 전면의 지붕두께가 달라진다. 그것은 시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 여기에 대해 김종성은 “그것을 정직하게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 건물구조에 고유성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¹⁾ 이같은 생각은 미스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었다. 미스가 설계한 IIT의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규모나 구조방식이 김종성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여기서도 “I 빔들이 한 방향으로만 힘이 걸리고, 미스는 이것을 고딕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⁴²⁾

그렇지만 각 부재들의 크기가 외부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례와 디테일에 대해 섬세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김종성은 지붕 두께가 얇은 전면 파사드에는 유리면을 기둥과 보의 최고 바깥부분과 맞추었고, 지붕두께가 두꺼운 측면 파사드에는 유리면을 기둥과 보의 중심에 맞추게 된다. 이것은 순전히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테일의 고안이다. 즉 지붕이 얇은 경우 유리면과 구조시스템을 한 면에 두어, 이들 사이의 일체감을 높이는 반면, 지붕이 두꺼울 경우 유리면보다 구조 시스템을 돌출시켜 구조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의 두께 차이에 따른 시각교정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종성이 자신의 석사논문 프로젝트에서 취한 태도에서, 미스의 건축원리 가운데 그가 올바르다고 판단한 몇 가지 선택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전개 될 그의 건축세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그는 무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구조시스템의 사용을 거부했고, 대신 건물의 스케일에 맞는 구조시스템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구조문제를 철저하게 공간적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훗날 그가 미술관이나 도서관을 설계하면서 보인 태도와 일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공간 속으로 빛을 끌어들이려는 것에 매우 민

41) 앞의 책.

42) Werner Blaser, *Mies van der Rohe*, Birkhäuser, 1994년, 78쪽.

40) 앞의 책.

감했고, 빛과 공간과의 관계를 건물설계에서 매우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계속해서 그의 건축작품에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 IIT교육 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김종성 건축에의 영향

IIT의 교과과정은 1938년과 1941년 두 차례에 걸쳐 미스가 확립시켜 놓은 교과과정과 교육목표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도전 받고 있다. 하나는 교육의 근본 방향에 관한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운영상의 문제이다. 미스는 자신이 평생을 두고 건축을 탐구하면서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매우 정교한 교과과정 속에 옮겨 놓았다. 그것은 그의 생각을 학생들이 충실하게 습득하는데는 매우 통일되고 일관된 과정이었다. 미스가 은퇴한 이후에도 그의 후임 교수들이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의 생각을 유지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런 선생님 밑에서 마치 도제들처럼 충실하게 그의 선생님이 세운 원칙들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며 습득하게 된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매우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스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기 전에 우선 그 원칙을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원칙을 숙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건전한 원칙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⁴³⁾ 이것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과과정을 도입하려는 다른 대학과는 매우 다르다.

특히 발터 그로피우스가 주도권을 가졌던 하바드 건축대학원의 경우 IIT의 교육방식과 대조적이다. 그로피우스 자신은 “내가 가르키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도그마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문제들을 향한 독창적이고, 탄력적이며, 부편부당한 태도라고 이야기하였다.”⁴⁴⁾ 이것은 대부분의 현대 건축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방식이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요소의 조합이나 역사적 양식

의 모방보다는 개인적 사고를 건축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IIT의 건축교육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IIT 교수들 역시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김종성은 “학생들의 작품이 틀에 박힌, 학교에서 배운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IIT의 교육방식이 가지는 허점이다”⁴⁵⁾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김종성은 건축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이 대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미국의 경우 하바드 대학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그것은 교육방식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 사회가 가지는 특수한 구조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건축사회의 중견층을 형성하는 건실한 빌더(builder)가 배출된다는 것, 이것은 IIT가 가지는 대단히 현실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들은 이 같은 빌더의 위치에서 한번 더 점프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건축교육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지만, 많은 비판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너무 일찍부터 생각을 고정된 틀 속에 묶어서 폭넓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스의 건축이 공격당하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건축경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더 강조하려는 최근의 건축경향과는 다르고 이것이 IIT 교육시스템이 가지는 특징이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교의 운영상의 문제이다. 미스이후 IIT의 교수들은 그의 사무실을 거처거나 미스의 제자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적어도 미스가 재직할 동안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못했다. 미스가 가지는 권위와 그의 동료들이 가지는 능동적인 대처에 힘입어 학교는 초기의 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후, 초기에 가졌던 활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틀림없다. 미스의 생각은 그가 오랜 독서를 통해 폭넓은 문화현상을 받아들여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매우 모순적인 것도 포함되는 복합적인 것이다. 그리고 단순하게는 파악되지 않는 심원함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미스의 변증법적인 복합성이 제대로 이해될 수 없었다. 오히려 애매함을 증폭시키게 된다. 따라서

43) Kevin Harrington, 앞의 책

44) 다음의 책에서 재인용, Klaus Herdeg, *The Decorated Diagram, Harvard Architecture and the Failure of the Bauhaus Legacy*, MIT Pres, 1983년. 80쪽.

45) 김종성, “현대건축과 건축교육”, 『공간』, 1976년 8월호.

그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모든 복잡성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성은 결과적으로 미스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오랜 기간동안 교과과정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다보니, 그동안 건축계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대학운영상의 경직화를 불러 일으켰고, 더 이상 창조적인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없었다.

김중성 건축에는 IIT 교육이 가지는 특징과 한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건축은 IIT 출신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명료한 구축체계, 엄밀한 디테일, 고귀한 비례, 자유롭고 풍부한 공간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러나 IIT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는, 건축에의 도식적인 접근방법이 김중성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기도 한다. 김중성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의 미스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가진 듯하다. 그것은 미스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미스가 초기에 생각하였던, 보다 유연하고 미묘한 공간과 조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의 대학원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거기서 그는 구조문제를 철저히 공간적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 그리고 내부공간속으로 빛을 끌어들이려는 것에 매우 민감했고, 빛과 공간과의 관계를 건물설계에서 매우 중시했다. 이를 통해 형태와 공간상의 미묘함과 정신성을 획득하려 했고, 이 점은 당시 IIT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그것은 비슷한 시기에 설계된 SOM과 C.H Murphy 사무실의 시카고 컨벤션 센터와 김중성의 서울 올림픽 역도 경기장을 비교해 보면 잘 나타난다. 시카고 건물의 경우 IIT의 두 주역인 진 서머스와 마이런 골드스미스가 설계에 주로 관여하는데, 그 출발은 미스건축이지만 그 엄청난 스케일로 인해 미스건물이 가지는 고도의 정신성을 담아낼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서울의 역도장은 그 비례나, 공간적 성취, 그리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미스의 원칙이 보다 잘 구현되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중성, "현대건축과 건축교육". 「공간」, 1976년 8월호.
2. Jong Sung Kimm, "An Exhibition Hall", IIT

석사논문, 1964년 6월

3. 배형민, "미국 보자르 건축의 이론과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3호, 2000년 9월.
4. 류전희, "근대건축교육 학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3년 2월
5. Werner Blaser, *Mies van der Rohe*, Birkhäuser, 1994년
6. Werner Blaser, *After Mies Mies van der Rohe-Teaching and Principles*, Van Norstrand Reinhold Company, New York, 1977년
7. Sigfried Giedion, *Walter Gropius: Work Teamwork*, New York, Reinhold, 1954년
8. Gevork Hatoonian, *Ontology of archite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년
9. Klaus Herdeg, *The Decorated Diagram, Harvard Architecture and the Failure of the Bauhaus Legacy*, MIT Pres, 1983년.
10. *Mies van der Rohe : Architect as Educator*, IIT, 1986년.
11. Fritz Neumeyer, *Artless World*, MIT Press, 1991년
12. Alfred Swenson, *Pao-Chi Chang, Architectural Education at IIT*, 1938-1978, II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IT's Educational System on the Jong Soung Kimm's Architecture

Jung, Inha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IIT's educational system on the Jong Soung Kimm's Architecture. Architect Kimm was the first student in Korea who gained admission to the IIT and was directly learned from Mies van der Rohe. At IIT, he completed a university course from 1956 to 1961, and finished a degree of master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Myron Goldsmith in 1964. After the graduation, he entered Mies's office and became the professeur of IIT from 1966 to 1978. In consideration with these fact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Kimm's architecture was formed by the IIT's educational system and Mies's architectur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synopsis of the 5-year curriculum 1944-45, the object of architectural work in IIT is the clarification of : 1)the structure as an architectural factor ; it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2) space as an architectural problem 3) proportion as a means of architectural expression 4) the expression value of materials 5) the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by means of free creative work. Architect Kimm's works designed in Korea reflect well these objectives.

But Kimm also knew well the problems of IIT's educational system. After the retirement of Mies, IIT's educational system had the tendency to overstress the technology of structure and simplify the complexity of Miesian architectural principles. In opposition to this tendency, architect Kimm continued to keep the spacial and formal subtlety which possess the Mies' original architecture. This shows very well the future direction of Kimm's architectural activities.